
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<small>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</small> 보다 나은 정부
	배포일시	2019. 10. 17(목) 총 5매(본문 4매)	
담당 부서 교통안전복지과	담당 자	· 과장 윤영중, 사무관 배성희, 주무관 강상진 · ☎ (044)201-3870, 3871	
보도 일시	2019년 10월 18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0.17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휠체어 이용자도 고속버스 장거리 여행 가능해진다

- ◆ 28일 휠체어 탑승 설비 갖춘 고속버스 시범 상업운행(3개월) 개시
- ◆ 4개 노선(서울↔부산, 서울↔강릉, 서울↔전주, 서울↔당진) 대상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10월 28일부터 휠체어탑승 설비*를 장착한 고속버스가 3개월 가량 시범(상업) 운행된다고 밝혔다.

* 휠체어전용 승강구·승강장치, 가변형 슬라이딩 좌석, 휠체어 고정장치 등

○ 이에 따라, 휠체어 이용자들도 고속버스를 타고 장거리 여행이 가능해지게 되었으며, 고속버스 티켓 예약은 10월 21일부터 고속버스 예매시스템(www.kobus.co.kr)을 통해서 이뤄질 예정이다.

□ 이번에 시범 운행되는 고속버스는 서울↔부산, 서울↔강릉, 서울↔전주, 서울↔당진간 4개 노선으로,

○ 10개 버스업체에서 각 1대씩 버스를 개조하여 버스당 휠체어 2대가 탑승할 수 있으며, 각 노선에 1일 평균 2~3회 운행될 예정이다.

< 노선별 참여업체 >

지역별	노선(4개)	운행업체(10개)	터미널	휴게소
영남권	서울 ↔ 부산	금호.삼화.한일	서울경부, 부산종합	낙동강
강원권	서울 ↔ 강릉	동부.중앙	서울경부, 강릉고속	횡성
호남권	서울 ↔ 전주	동양.천일	센트럴시티, 전주고속	정안
충청권	서울 ↔ 당진	한양.충남.대원	센트럴시티, 당진종합	정안

-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는 이번에 처음 상업운행되는 것으로, 3개월 가량의 시범운행을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버스업계,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해 가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.
- 그간 장애인단체 등에서는 수년 전부터 명절에 서울경부·남부 터미널 등에서 휠체어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확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례적으로 개최해 왔고, 인권위 권고도 있었다.
- 국토부는 '17년부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·시외버스 표준 모델과 운영기술의 개발에 대한 연구('17.4~'19.9)를 진행하면서,
 - 휠체어 탑승 고속·시외버스 모델을 개발하고 안전성 검증을 하였으며,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하차하고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터미널과 휴게소에 대한 시설개선 방안을 마련하고, 예매시스템도 개발해왔다.
-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도권과 권역별 주요 도시 간 노선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버스업계, 터미널·휴게소업계, 장애인단체와의 의견수렴을 거쳐 4개 참여노선을 최종 확정하였고, 금번에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.
- 고속버스는 시속 100km/h 이상 운행이 가능하므로, 휠체어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버스의 좌석 역할을 하는 휠체어 역시 안전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,
 -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버스의 좌석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에 대한 세부 표준(KS P ISO 7176-19*)을 정하고 있어,
 - * 자동차의 좌석으로 사용가능한 모든 수동·전동휠체어, 스쿠터에 적용되는 국제표준으로 정면 충돌시험(48km/h) 방법 및 고정장치 성능·위치 등 제시
 - 예매 전 고속버스 예매시스템(www.kobus.co.kr)에서 안전성 시험에 통과한 휠체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.

○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휠체어를 대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정면충돌 시험(48km/h)에서는,

- 상당수 휠체어가 휠체어에 고정장치 체결을 위한 고정구(연결고리)가 없거나 휠체어의 강성(強性)*이 부족하여, 고속버스의 좌석으로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.

* 물체가 외부 압력에 의해 모양이나 부피가 변하지 않고 견디는 성질

< 48km/h 정면충돌 시험 결과 >

전동휠체어		수동휠체어(시험 後)
시험 前	시험 後	
		
고정구 없는 휠체어에 연결했을 경우 휠체어 연결부분이 파손		휠체어 강성 부족으로 좌석이 파손되어 내려앉음

□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버스 출발일 기준 3일전 자정까지는 예매(28일 승차시 25일 24:00까지 예매)를 해야 하는데,

- 고속버스 경우 차량의 상태, 운전자의 근무일수, 휴가 사항 등을 고려하여 출발일 기준 3일전 자정에 운행차량 및 운전자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,
-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하기로 예정된 경우에 휠체어 승강장치 등의 사용방법을 숙지한 버스 운전자가 같이 배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.



- 또한, 버스에 장착된 휠체어 전용리프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3m의 승차장 여유 폭이 필요한데, 기존 승차장에서는 리프트를 이용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어,
 - 버스터미널내 별도로 마련된 전용 승차장에서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한 후 기존 승차장으로 이동해서 다른 승객들을 태워야 하므로 출발 20분 전까지 전용 버스승차장에 도착하여야 원활한 탑승이 가능하다.
- 국토교통부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은 “이번 시범운행을 계기로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대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”면서
 - 휠체어 장애인의 장거리 버스 이동을 위한 첫 시범 운행이다 보니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발생도 배제할 수 없어, 시범 운행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미흡한 사항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’ 고 말했다.
 - 아울러,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 뿐 아니라 동승하는 승객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장애인을 배려하고 협조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수적이라 강조하고,
 -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조해주고 있는 버스업계와 휴게소·터미널업계 및 관련 단체에도 고마움을 표시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배성희 사무관(☎ 044-201-3870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

휠체어버스 예매 및 탑승가능 휠체어 확인 방법

□ 예매 방법

- 코버스 예매시스템(www.kobus.co.kr)과 연동되는 휠체어석 예매 전용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예매 가능함
- 탑승일 기준 3일 전 자정까지 예매하여야 하고, 운행 차량 1대당 총 2대의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음
- 휠체어버스에 탑승가능한 휠체어는 ISO 7176-19 인증을 받은 휠체어로만 제한되므로, 이용하고 있는 휠체어가 인증받은 휠체어 인지는 코버스 예매시스템(www.kobus.co.kr)에서 확인 필요



□ 탑승가능 휠체어 확인 방법

- 휠체어의 고정구(연결고리) 설치 여부로 확인 가능

※ 안전기준(ISO 7176-19) 인증된 휠체어의 연결고리(예시)

